

종합

막걸리, 영어로 뭘까

aT 3~17일 애칭 공모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농림수 산식품부와 함께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다음 달 3~17일 막걸리의 영문 애칭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막걸리는 영문으로 'Makgeolli'로 써야한다. 그러나 표기나 발음이 모두 외국인에게 어려워 쉬운 표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일본에서는 '맛코리(マッコリ)'란 이름으로 막걸리가 유통되면서 통용된 표기법이 있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T 관계자는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고 친근하며 재미 있는 영문 애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은·동상 수상자를 선정해 총 220만원의 상금도 준다.

aT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접수하면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2-6300-1703)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지에, 광주에 골프 아카데미 설립

2012년까지 704억 투자 꿈나무 육성...3일 MOU 체결

'파이널 킨' 신지에의 골프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주에 들어선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영광출신으로 미국 LPGA에서 활동중인 세계적인 프로 골퍼 신지에 선수가 광주에 704억 원 규모의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신지에 선수, 신 선수의 아버지 신제섭씨 등은 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골프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신 선수는 오는 2012년까지 광주에 704억 원을 투자해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번 투자에는 신 선수와 신 선수의 아버지가 대주주인 'Global Brand 신지에'와 함께 스카이72골프리조트, 광주는 행, 미래에셋 등이 참여한다. 골프아카데미는 광주시 일원에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적당한 부지를 모색 중이다.

'신지에 키즈(kids)'의 산실이 될 골프 아카데미에는 LPGA 기념관과 체력단련실, 쇼트게임장, 테라피·스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국의 골프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 선수는 이날 MOU에 앞서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빛고을CC에서 기념라운딩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지에 골프 아카데미'가 골프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휴양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1405억원의 생산과급효과와 2100명의 고용증대효과,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프아카데미가 건립되면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레저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예향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골프아카데미가 건립되면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레저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예향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 해남군수 후보 박철환씨 '전략공천'

광주시장 후보 재심 3일 논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남군수 후보에 박철환(51 사진) 해남군의회 부의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박 부의장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또 이날 광주시장 후보 재심 문제를 다룬 예정이었지만, 최고위원들 간에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재심위원회의 결과를 개방하면 신속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개방에 앞서 지역 및 지역국회의원 여론 등의 상황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최고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 요구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에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음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0여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법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노당 당사로 수사관 2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오후 1시50분께 당사에 도착해 당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건네주면서 3일까지 당원 명부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 6·2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도당 대강당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필승을 다짐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제공)

한나라 전남도당 선대위 출범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도당 대강당에서 '6·2지방선거 전남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박재순·정의화 최고위원 등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 1천여 명이 참석해 6·2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전남 선거대책위원장은 박재순 최고위원이 선임됐으며, 김기용 전남도당 위원장은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의 현안사업들이 쌓여가는데 민주당만 바라볼 수 없다"면서 "이제는 정부 여당과 함께 전남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싸움을挑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2일 오후 2시 광주시당 대강당에서 정용화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지방선거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안함 재질과 다른 알루미늄 파편 발견"

김태영 국방장관 국회 밝혀

김태영 국방장관은 30일 천안함 침몰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에 대해 "알루미늄 조각인데 우리 것과 좀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필요시 (북한에 대해) 무력시위를 할 제국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

의에 출석해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재질 분석결과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금속 성분인데 뭔가 특이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부품 등인지, 합성의 재질과 좀 다르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이날 중순쯤 천안함 침몰사건 중간조사 결과와 발표를 목표로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 수집 및 분석에 박차를 가해왔다. 김 장관은 금속성분 4건, 플라스틱 1

건의 재질물에 대해 "미세한 3mm 정도 되는 조그마한 파편부터 4~5cm인 것도 있다. 합성 내에 있는 재질과 같은 경우 금방 확인되고, 그 외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중점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합성 내 재질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어떤 공격을 했다면, 공격한 물체와 관련된 것인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설

상하이에서 여수박람회 희망 찾아라

2010 상하이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전세계 192개 국가와 50개 국제기구 등이 참가한 가운데 1일 개막됐다. 이번 박람회는 개막 하루 전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이명박 대통령,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 20여명 등이 참석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31일까지 184일간 열린다.

상하이시는 이번 박람회에 관람객 1억명(외국인 500만명 포함), 경제효과가 12조93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박람회는 '경제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다.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3년 대전엑스포를 발판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발전했다. 중국정부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활약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하이박람회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여수박람회는 현재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나라는 43개국에 불과하고 박람회 준비역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설물 조성사업과 교통·숙박 등 기반시설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수익사업 및 운영비 마련 등도 여의치 않아 박람회 성공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상하이박람회에 참석할 만큼 세계박람회의 중요성을 각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민리porter 76명이 상하이 현지를 답사했다고 하니 그들이 벤치마킹한 내용들을 여수박람회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준비 소홀은 국가적 망신을 부르는 일이다.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 철저히 준비해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경제계 대표, 언론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이나 각종 원자재 등의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거래소는 오는 2011년 설립된다.

광주시는 오래 전부터 상품거래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전남 기획팀을 발족시켜 상품거래소 유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상품거래소 유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마무리했다. 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민간기구인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오는 6월께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포럼'을 여는 등 광주가 최적지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상품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부산과 대구·경북 등도 상품거래소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품거래소는 광주에 설립되어야 마땅하다. 광주에 상품거래소가 설립되면 서울의 증권거래, 부동산의 선물거래와 함께 금융 3각축이 형성된다. 광주 유치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치적 당위성도 확보돼 있다.

동북아 상품거래소의 광주 설립은 고용증대효과를 물론 지역금융시장의 건전화 발전,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금융과 물류산업 육성으로 제 2의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역량을 모아라 한다.

금강산 南 인력 16명 남기고 다 추방

北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 통보

북한은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불수 조치에 이어 현재의 남측 인력을 16명으로 제한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광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은 이날 현대아산 금강산 사무소를 방문, '현대아산 인력 12명, 금강산 골프장 업체인 에머스퍼시픽 인력 4명 등 총 16명만 남고 나머지 금강산 관광 관련 인력은 5월30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측은 '최소한의 연락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16명을 잔류시킨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16명의 국적에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직원숙소, 온정객사무실, 병원, 통신실, 통행객사소, 연유공급소, 일부 발전시설 등 잔류 인원의 생활시설은 부동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현대아산 직원 등 우리 국민 48명과 중국동포 38명 등 금강산 관광 관련 인력 86명이 체류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주말에 동해선 출입경이 없기 때문에 추방 대상자들은 대부분 3일 오전에 귀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與 의원들 "전교조 명단 공개 끝까지 동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 10여 명이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법원 판결에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교조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로 맞서고 있고, 법원과 야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조 의원 혼자 골목에서 외롭게 좌파의 못매를 맞게 할 수 없다"며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김효재 의원이 전날 본인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을 올려놨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앞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의원들 상대로 별도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o.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scape with buildings and a sun/moon, with the text '빛의만평' and '김종두' prominently displayed.

Advertisement for '대주주 100대1·소액주주 3대1 감자' (Large Shareholder 100:1, Small Shareholder 3:1 Potato) by Kim Jung-doo. It discusses the issue of shareholding concentration and proposes a 'Shareholding Restriction'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 본격 추진) to address the im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shareholders.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The Kwangju Ilbo'. It includes details such as the publication name in Korean and English,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